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2卷(1), 2009, 4, pp. 117~139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천 수\*

본 연구는 2006년 대학졸업생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6)의 결과를 이용하여, 해외 어학연수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의 15.4%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으며, 개인별 소요비용은 연간 등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참여 비중이 높고, 연수 국가로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영어 사용국이 많았다.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24.3%)이 높으며, 임금수준(7%)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취업을 위한 구직기간( $\Delta$ 12.8%)이 비교적 짧으며, 일자리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재직기간(8.8%)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해외 어학연수는 '현명한 순례자(perspicacious peregrinators)'와 같이 경제적인 유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적자본축적 활동의 하나임을 암시한다.

- 주제어: 해외 어학연수, 대졸취업, 구직기간, 임금, 현명한 순례자

투고일: 2009년 2월 5일, 심사일: 3월 10일, 게재확정일: 4월 15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conodr@krivet.re.kr)

## I. 서론

최근 외국어 특히 영어 능력향상과 이를 위한 몰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어 몰입 교육의 가장 흔한 형태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학교 강의,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마을 체험, 그리고 영어권 국가로의 어학연수 등이 있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교수들의 영어구사능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의 영어소통능력 격차로 인해 활용의 여지가 낮다. 영어마을 체험은 영어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나 단기 해외여행이 그 나라의 언어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제한적이다.<sup>1)</sup> 이에 비하여 영어능력 강화를 위한 해외 어학연수는 비용과 시간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어 몰입교육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불하는 해외 연수비용은 여러 가지 지출을 합하여 평균적으로 어학연수가 8,000달러이고 직무연수가 2만 달러로 전체 연수경비는 17억 3,000만 달러로 추산됐다. 해외 연수를 위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중단 및 졸업연기 등으로 인한 전공학습의 연속성 훼손이나 경제활동참여시기의 지연 등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sup>2)</sup>

본 연구는 영어 몰입교육 중에서도 상당한 직·간접적인 비용이 드는 해외 어학연수가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를 경제적인 유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대학생 해외 어학연수의 실태를 살펴보고, 어학연수가 취업이나 임금, 취업소요기간 등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영어캠프가 학생들의 국외 어학연수 참여 의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캠프 참여 학생 364명을 표본조사한 논문은 “캠프 내용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학생들이) 국외 어학연수를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한겨레신문, 2008년 3월 10일자).

2) 갑코리아가 대학생 지식포털 캠퍼스문과 함께 대학 4학년에 재적 중인 학생 1천318명을 대상으로 휴학 경험을 조사한 결과, 58.8%가 ‘군 복무 이외의 이유로 휴학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한 이유로(복수응답) ‘어학연수를 위해서’(29.8%)가 가장 많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26.3%),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24.9%), ‘취업준비를 위해서’(23.9%)라는 응답도 적지 않다(연합뉴스, 2008년 3월 6일자).

## II. 이론적인 배경과 연구방법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기업이 보유한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 이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듯이, 개인이 축적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 취업이나 임금상승과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본다(Becker, 1975).<sup>3)</sup> 그러므로 성별이나 학력수준, 연령에 따른 임금이나 실업률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는 차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해당 집단이 축적한 인적자본의 격차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석한다(Polacheck & Siebert, 1993). 즉, 임신이나 출산에 의해 일 자리에서 이탈한 여성과 계속 일자리에 머문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고, 이러한 격차의 발생요인이 직업 현장 이탈에 의한 인적자본의 훼손에 의한 것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음을 제시한다(Polacheck, 1975).

기업은 개인이 축적한 인적자본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들이 보유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개인은 자신이 축적한 인적자본의 양에 따라 높은 임금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에 초빙되는 형태로 입직하기도 하고, 장기간의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입직이 반복적으로 거절되어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별과 같은 인적 특성이나 취업준비 활동이 취업이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적자본 축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용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대학 졸업자가 더 잘 취업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다(오세규, 2003)는 것은 서울지역 대학 졸업자가 다른 지역 졸업자보다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한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학사학위 과정이라는 유사한 수준의 교육을 마쳤을지라도, 노동시장에서 인정된 인적자본 축적의 수준은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정태화, 1994). 그런 점에서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은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활동과 이에 대한 노동시장의 평가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은

3)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은 학교 교육(schooling), 직장 내 훈련(OJT), 이주(migration), 건강(health), 정보(information) 등이다(배무기, 2002).

많은 연구에서 임금, 취업여부, 대기업 취업가능성, 정규직 비율이 남자에 비하여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안국, 2003). 학력이 높을수록 학점이 좋을수록, 취업 가능성과 임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규용·김용현, 2003). 직업관련 각종 자격증의 취득은 인적자본의 축적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강순희·박성재, 2002; 이상준, 2006). 거주지역의 환경요소들이 임금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도 많다(Smith, 1983). 어학연수 여부나 어학시험 점수를 통한 어학실력의 검증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진미석·윤형한, 2003).

앞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특정한 시점에서 취업 성공여부나 임금차이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노동시장 성과의 동태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강순희·박성재, 2002). 그런데 취업 자체는 낮은 임금이나 특정 직무분야 입직과 같이 기대수준을 낮추는 경우에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임금 일자리와 영업직과 같은 직종에서는 빈 일자리가 많아 상시 구인 등록을 하고 근로자를 구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4) 한편,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는 '근로여건(근로시간, 보수)에 대한 불만족(33.9%)'이나 '보다 나은 직장을 위한 전직(16.5%)' 등과 같이 취업해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이 많다(천영민·윤정혜·이성재, 2008).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기업은 입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요구하고,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인적자본도 축적된다. 때문에 재직기간은 일자리의 질을 보여 주는 지표이며, 인적자본의 축적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변수로 판단된다(오호영, 2008). 그러므로 취업여부와 함께 입직 이후 재직기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와 인적자본 형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외 어학연수 결정 요인을 로짓(logistic) 모형으로 살펴보고, 취업여부(logistic)와 임금수준(Heckman's two step estimation)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시도한다. 이어서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 method)을 이용하여 취업기간과 재직기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4) 워크넷(<http://www.work.go.kr>)에는 언제나 수천 개의 영업 관련 일자리가 있다.

### Ⅲ. 실증 분석

#### 1. 해외 어학연수 결정요인

본 연구를 위하여 2004학년도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에 실시한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06).<sup>5)</sup> 이에 따르면 2004년 졸업생 503천 명 가운데에서 47천 명이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평균적으로 1,198만 원을 지출하여 연간 학교납부금 이상을 사용하였다.<sup>6)</sup> 대학별로 졸업생의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 비중을 보면 전문대학은 전체 졸업생의 2.3%(5,337명)이며 교육대학은 4.2%(234명)인 반면에, 4년제 일반대학은 15.4%(41,472명)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sup>7)</sup>

4년제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1〉 참고). 먼저 입학 시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학연수를 많이 가는 편이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백만 원 이하 가구 출신자가 1~2백만 원 쪽보다 더 많이 어학연수를 가고 있어, 저소득층에서 교육에 다걸기(all in)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sup>8)</sup> 학비를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때 여타의 경우에 비하여 어학연수 참여가 높고, 14세 현재 거주 지역이 해외일 때 어학연수를 더 적게 가고 있다.<sup>9)</sup> 성별로는 여성의 어학연수 참여가 약간 많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상대적으로 많고 의약계열이 적다.<sup>10)</sup> 본교에 비하여 분교 재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더 많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점이 좋을수록 어학연수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중치는 자료를 생성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으며,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v 15.0)와 STATA(v 9.0)이다.

6) 연간 전문대학 이상의 해외 어학연수 비용은 총 5천6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7)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는 해외 어학연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시된 수치는 가중치로 계산된 것이다.

8) 4~5백만 원이 기준변수이다.

9) 대전지역이 기준변수이다.

10) 교육계열이 기준변수이다.

<표 1> 어학연수 결정요인<sup>11)</sup>

구분		모형 1(-2log L=210,784)				모형 2(-2log L=210,428)			
		계수	S.E.	Wald	유의 수준	계수	S.E.	Wald	유의 수준
학과전망		0.2412	0.0063	1481.1	0.0000	0.2369	0.0063	1424.9	0.0000
졸업평점		0.1576	0.0080	384.8	0.0000	0.1572	0.0080	382.2	0.0000
대학 만족도	교수진	-0.0648	0.0083	60.9	0.0000	-0.0659	0.0083	62.7	0.0000
	교수방식	0.0196	0.0090	4.7	0.0296	0.0170	0.0090	3.6	0.0590
	전공교육	-0.0298	0.0083	12.9	0.0003	-0.0256	0.0083	9.5	0.0021
14세 현재 거주지역	해외(14세)	-1.0375	0.0991	109.6	0.0000	-1.0761	0.0991	118.0	0.0000
입학 시 월 가구소득	1백만 원 미만	-0.7246	0.0360	405.2	0.0000	-0.7275	0.0360	407.3	0.0000
	1~2백만 원	-0.7347	0.0217	1144.6	0.0000	-0.7271	0.0217	1120.2	0.0000
	2~3백만 원	-0.4480	0.0171	688.2	0.0000	-0.4440	0.0171	674.3	0.0000
	3~4백만 원	-0.1423	0.0177	64.5	0.0000	-0.1404	0.0177	62.7	0.0000
	5~10백만 원	0.2351	0.0192	150.4	0.0000	0.2406	0.0192	157.2	0.0000
	1천만 원 이상	0.2145	0.0321	44.7	0.0000	0.2161	0.0321	45.3	0.0000
대학소재 권역	서울권	0.5248	0.0204	664.6	0.0000	0.5121	0.0204	630.0	0.0000
	경기권	0.2753	0.0214	165.0	0.0000	0.2689	0.0215	156.9	0.0000
	경상권	0.0911	0.0261	12.2	0.0005	0.0886	0.0261	11.5	0.0007
	전라권	-0.2036	0.0339	36.1	0.0000	-0.1961	0.0339	33.4	0.0000
성별	여자	0.0427	0.0124	11.9	0.0006	0.0545	0.0124	19.2	0.0000
계열	인문계열	1.5460	0.0207	5558.3	0.0000	1.5200	0.0208	5352.4	0.0000
	사회계열	0.5375	0.0206	681.5	0.0000	0.5117	0.0207	613.9	0.0000
	공학계열	0.4868	0.0219	494.0	0.0000	0.4323	0.0221	384.2	0.0000
	자연계열	0.1282	0.0248	26.7	0.0000	0.0977	0.0248	15.4	0.0001
	의약계열	-0.4035	0.0397	103.4	0.0000	-0.4433	0.0397	124.5	0.0000
분교		0.4518	0.0193	550.5	0.0000	0.4454	0.0193	533.7	0.0000
전공 재선택 여부		-0.2494	0.0129	372.0	0.0000	-0.2436	0.0129	354.1	0.0000
학비	부모 지원	0.3637	0.0142	658.6	0.0000	0.3626	0.0142	654.2	0.0000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0.0186	0.0122	2.3	0.1267	0.0222	0.0122	3.3	0.0687
	훈련경험	0.0279	0.0157	3.2	0.0746	0.0383	0.0157	6.0	0.0147
	자격증 보유	-0.0494	0.0120	17.1	0.0000	-0.0331	0.0120	7.7	0.0057
	취업목표	0.1148	0.0116	97.3	0.0000				
	목표기업					0.2982	0.0141	447.7	0.0000
목표직업					-0.1482	0.0126	137.8	0.0000	
상수		-3.5962	0.0588	3740.0	0.0000	-3.4976	0.0588	3541.7	0.0000
N=15,910		정확도(84.1)				정확도(84.8)			

11) 종속변수는 연수경험(yes=1, no=0)이다. SPSS는 소수점 이하의 가중치를 로짓모형에서 수행하지 않으므로 가중치가 삭제된 자료로 분석하였다. 이하 실증 분석결과로 제시된 표에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일부 변수가 지면관계로 생략되었다.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는 전라도권 대학의 졸업자가 상대적으로 어학연수를 적게 가고 있다.<sup>12)</sup> 학과교수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학연수를 적게 가고 있으며, 훈련경험은 어학연수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그 강도가 크지 않다.<sup>13)</sup> 반면 자격증 취득은 어학연수와 대체관계를 보이는데, 자격증 준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학연수와 자격증 취득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sup>14)</sup>

## 2. 횡단 분석(cross section analysis)

### 가. 취업효과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의 취업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항로짓(logistic) 모형을 통하여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sup>15)</sup>

계량모형의 추정결과(〈표 2〉 참고)를 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는 평균적으로 24.3%나 취업가능성이 높다.<sup>16)</sup> 이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해 영어를 기본으로 외국어 능력과 타 문화 이해력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 결과로 이해된다. 국가별로는 캐나다와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순으로 취업촉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국과 뉴질랜드의 어학연수 경력은 취업촉진 효과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기준변수는 대전권이다. 또한 표에서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향후 5년간 학과전망에 대하여 긍정할수록 어학연수가 많아지고 있다(1=매우 나쁨, 5=매우 좋음).

13)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이다.

14) 2종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자격증 소지여부를 보면, 전체 졸업생의 2/3 정도(65.6%)가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대학 졸업 후에 한 번이라도 취업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현재 일반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는 취업자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이거나 졸업 후 첫 직장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이지 않는 졸업생을 취업자로 간주한다. 전체에서 취업자 혹은 취업 경험자는 72.0%이고, 일반대학원 재학자는 12.5%, 구직자나 비경제활동인구는 15.5%이다. 종속변수는 취업경험(yes=1)과 정규직 취업경험(yes=1)이다.

16)  $\exp(0.2172)=1.2426$ 이다.

<표 2> 취업 효과분석

구분	취업 1			취업 2			정규직 취업			
	계수	S.E	유의 수준	계수	S.E	유의 수준	계수	S.E	유의 수준	
졸업평점	0.0369	0.0081	0.0000	0.0366	0.0081	0.0000	0.037	0.008	0.000	
대학 만족 도	교수진	-0.0667	0.0083	0.0000	-0.0667	0.0083	0.0000	-0.086	0.008	0.000
	교수방식	0.0092	0.0092	0.3165	0.0081	0.0092	0.3756	0.049	0.009	0.000
	전공교육	0.1178	0.0081	0.0000	0.1196	0.0081	0.0000	0.017	0.008	0.026
	취업지원	0.1119	0.0063	0.0000	0.1111	0.0063	0.0000	0.168	0.006	0.000
입학 시 월 가 구 소득	1백만 원 미만	0.2401	0.0337	0.0000	0.2399	0.0337	0.0000	0.174	0.030	0.000
	1~2백만 원	-0.0353	0.0201	0.0800	-0.0348	0.0202	0.0847	0.012	0.019	0.513
	2~3백만 원	-0.1783	0.0175	0.0000	-0.1787	0.0175	0.0000	-0.040	0.017	0.016
	3~4백만 원	-0.0790	0.0191	0.0000	-0.0806	0.0191	0.0000	-0.042	0.018	0.020
	5~10백만 원	0.1370	0.0230	0.0000	0.1388	0.0230	0.0000	0.120	0.021	0.000
	1천만 원 이상	0.2109	0.0413	0.0000	0.2147	0.0413	0.0000	0.104	0.037	0.005
대학 소재	서울권	0.1235	0.0186	0.0000	0.1166	0.0186	0.0000	-0.059	0.017	0.001
	경기권	0.1772	0.0197	0.0000	0.1757	0.0197	0.0000	0.030	0.018	0.100
	경상권	-0.1667	0.0173	0.0000	-0.1673	0.0174	0.0000	-0.092	0.017	0.000
	전라권	-0.3816	0.0197	0.0000	-0.3809	0.0197	0.0000	-0.215	0.019	0.000
성별	여자	0.1239	0.0272	0.0000	0.1221	0.0272	0.0000	0.185	0.025	0.000
계열	인문계열	-0.2424	0.0191	0.0000	-0.2464	0.0193	0.0000	-0.073	0.018	0.000
	사회계열	0.0046	0.0171	0.7888	0.0000	0.0171	0.9984	0.374	0.016	0.000
	공학계열	0.4995	0.0201	0.0000	0.4980	0.0201	0.0000	0.901	0.019	0.000
	자연계열	0.0026	0.0204	0.8981	0.0024	0.0204	0.9056	0.224	0.019	0.000
	의약계열	0.9517	0.0362	0.0000	0.9511	0.0363	0.0000	0.775	0.030	0.000
분교	0.0374	0.0219	0.0874	0.0337	0.0219	0.1242	-0.013	0.020	0.507	
전공 재선택 여부	0.2552	0.0128	0.0000	0.2558	0.0129	0.0000	0.087	0.012	0.000	
학비	부모 지원	-0.2642	0.0138	0.0000	-0.2653	0.0138	0.0000	-0.041	0.013	0.001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0.1021	0.0124	0.0000	0.1020	0.0124	0.0000	0.121	0.012	0.000
	직업훈련	-0.2425	0.0118	0.0000	-0.2434	0.0118	0.0000	-0.166	0.011	0.000
	자격보유	0.3516	0.0164	0.0000	0.3516	0.0164	0.0000	0.456	0.016	0.000
	어학학원	-0.1445	0.0125	0.0000	-0.1442	0.0125	0.0000	-0.002	0.012	0.869
	단일전공	0.0054	0.0137	0.6954	0.0059	0.0137	0.6662	-0.045	0.013	0.001
	군인경력	0.4894	0.0275	0.0000	0.4907	0.0275	0.0000	0.577	0.025	0.000
	직업탐색	0.4671	0.0113	0.0000	0.4689	0.0113	0.0000	0.838	0.011	0.000
조기졸업	-0.1486	0.0400	0.0002	-0.1473	0.0400	0.0002	-0.168	0.038	0.000	
어학연수 경험	0.2172	0.0168	0.0000							
어학 연수 국가	미국				0.1432	0.0364	0.0001	0.400	0.036	0.000
	캐나다				0.6354	0.0395	0.0000	0.382	0.034	0.000
	호주				0.0964	0.0387	0.0127	0.352	0.040	0.000
상수	0.5817	0.0541	0.0000	0.5892	0.0542	0.0000	-0.235	0.051	0.000	
-2logL	208781.5			208579.6			224261.2			
적합도	82.3			82.3			79.0			
표본 수	13,827			13,827			13,827			

취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보면, 높은 졸업평점은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이 충실할수록 취업 가능성도 높아져, 대학교의 취업지원 활동은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학학원과 직업훈련 경력자는 평균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낮고, 복수전공자 혹은 부전공자는 취업에서 특별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기졸업자는 예상과는 달리 취업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취업자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격증 취득,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자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임금(소득)효과

해외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어학연수가 임금(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표본선택편이(sample selection bias)를 고려하여야 한다(Gronau, 1974). 때문에 표본편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단계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취업자의 임금(소득)방정식을 분석하였다(Heckman, 1979). 표본 선택모형은 앞에서 사용한 취업모형의 변수들을 사용(probit)하였으며, 여기에서 헤크만의 람다( $\lambda$ )를 추출하고 독립변수에 추가하였다. 방정식은 전체 취업자와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종속변수는 월간 급여(소득)와 시간 급여를 로그 값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sup>17)</sup> 분석결과(〈표 3〉참고)의 다른 조건이 같다면, 어학연수 경험자는 임금(소득)에서 평균적으로 7%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8)</sup> 이는 표본선택편이를 고려(OLS)하지 않는 분석(4~5%)보다 2~3% 정도 많은데, 취업가능성이 통제(control)되면서 어학연수의 영향이 더 커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선택편이를 고려하면 기능이나 전공의 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불이익이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한편, 이러한 프리미엄은 고임금 분야가 주로 외국어 능력을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박천수, 2005).

17) 기준변수는 앞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표에서는 생략되었으나 회귀모형에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 대학의 권역, 직종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18) 람다가 클수록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은 낮아진다(Heckman, 1979). 람다가 음의 계수이므로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클수록 임금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lt;표 3&gt; 임금 분석

대상 (종속변수)	전체 취업자 (로그 월급·소득)			전체 취업자 (로그 시간급·소득)			정규직 취업자 (로그 월급·소득)			
	계수	S.E	유의 수준	계수	S.E	유의 수준	계수	S.E	유의 수준	
상수	3.9351	0.0713	0.0000	-0.8949	0.0779	0.0000	4.2157	0.0699	0.0000	
나이	0.0331	0.0014	0.0000	0.0275	0.0015	0.0000	0.0330	0.0013	0.0000	
여자	-0.0620	0.0200	0.0020	0.0153	0.0215	0.4770	-0.0322	0.0163	0.0490	
계열	인문계열	-0.0870	0.0157	0.0000	-0.0742	0.0169	0.0000	-0.0689	0.0132	0.0000
	사회계열	-0.0021	0.0138	0.8810	-0.0067	0.0149	0.6520	0.0121	0.0137	0.3750
	공학계열	-0.0236	0.0151	0.1190	-0.0204	0.0162	0.2100	0.0056	0.0137	0.6850
	자연계열	-0.0477	0.0184	0.0090	-0.0686	0.0198	0.0010	-0.0507	0.0133	0.0000
	의약계열	0.2034	0.0268	0.0000	0.0827	0.0289	0.0040	0.1856	0.0234	0.0000
분교	0.0530	0.0142	0.0000	0.0680	0.0152	0.0000	0.0374	0.0115	0.0010	
전공재선택	-0.0153	0.0078	0.0520	0.0019	0.0084	0.8240	-0.0030	0.0063	0.6290	
조기졸업	0.0706	0.0282	0.0120	0.0994	0.0302	0.0010	0.0703	0.0229	0.0020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0.0125	0.0084	0.1350	-0.0053	0.0090	0.5570	0.0032	0.0068	0.6350
	취업목표	0.0286	0.0078	0.0000	0.0080	0.0083	0.3390	0.0323	0.0064	0.0000
	직업훈련	0.0008	0.0126	0.9520	-0.0134	0.0136	0.3240	0.0074	0.0108	0.4930
	자격증	0.0237	0.0084	0.0050	0.0019	0.0090	0.8370	0.0228	0.0070	0.0010
	단일전공	-0.0484	0.0094	0.0000	-0.0553	0.0101	0.0000	-0.0531	0.0077	0.0000
	군복무	-0.0001	0.0226	0.9950	0.0485	0.0244	0.0470	0.0265	0.0201	0.1880
직장탐색	-0.0373	0.0128	0.0040	-0.0457	0.0138	0.0010	-0.0192	0.0118	0.1040	
기업규모	0.0081	0.0009	0.0000	0.0073	0.0009	0.0000	0.0126	0.0008	0.0000	
불일치	과잉교육	-0.0508	0.0128	0.0000	-0.0484	0.0140	0.0010	-0.0443	0.0105	0.0000
	과잉기능	-0.0437	0.0130	0.0010	-0.0158	0.0143	0.2690	-0.0233	0.0108	0.0310
	전공불일치	-0.0301	0.0094	0.0010	-0.0653	0.0103	0.0000	-0.0365	0.0077	0.0000
노조 불가	-0.1553	0.0097	0.0000	-0.1406	0.0107	0.0000	-0.1362	0.0076	0.0000	
기업성격	민간회사	0.1255	0.0130	0.0000	-0.0114	0.0143	0.4260	0.0790	0.0115	0.0000
	외국회사	0.2426	0.0227	0.0000	0.1137	0.0249	0.0000	0.1911	0.0187	0.0000
	정부투자	0.1032	0.0193	0.0000	0.0117	0.0212	0.5810	0.0791	0.0162	0.0000
	정부기관	-0.0174	0.0187	0.3520	-0.1161	0.0206	0.0000	-0.0543	0.0157	0.0010
	교육기관	0.0219	0.0194	0.2580	-0.3078	0.0213	0.0000	-0.0174	0.0183	0.3420
	연구기관	-0.2232	0.0407	0.0000	-0.4040	0.0448	0.0000	-0.2260	0.0374	0.0000
산업	제조업	0.0533	0.0119	0.0000	0.0757	0.0130	0.0000	0.0484	0.0095	0.0000
	교육서비스	-0.1918	0.0189	0.0000	0.0634	0.0207	0.0020	-0.1672	0.0170	0.0000
	사업서비스	0.0248	0.0127	0.0500	0.0115	0.0139	0.4100	0.0105	0.0104	0.3110
	보건사회	-0.1143	0.0193	0.0000	-0.1002	0.0211	0.0000	-0.1136	0.0159	0.0000
판매업	0.0070	0.0168	0.6750	0.0149	0.0184	0.4170	0.0170	0.0137	0.2160	
정규직	0.3809	0.0109	0.0000	-0.0016	0.0120	0.8930				
어학연수경험	0.0754	0.0107	0.0000	0.0762	0.0115	0.0000	0.0657	0.0090	0.0000	
람다( $\lambda$ )	-0.2021	0.0638	0.0020	-0.1239	0.0697	0.0750	-0.0760	0.0470	0.1060	
Wald $\chi^2$	9,353.87			5,043.18			7,966.98			
표본 수	12,177			12,167			10,105			

나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1년에 3% 내외로 추정되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월 급여 기준으로는 낮으나, 시간당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을 기준으로 인문계열이 가장 낮고 자연계열도 낮으나 의약계열은 매우 높다. 분교출신은 예상과는 달리 본교출신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기졸업자는 월급여가 높은 편이고, 취업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도 전반적으로 임금이 높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에 임금에서 5% 정도의 프리미엄을 누렸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임금 상승 역시 뚜렷하게 발견되어, 규모효과(scale effect)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잉교육, 과잉기능, 전공불일치에서 과잉교육 분야 취업자의 불이익이 가장 크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가입이 곤란한 경우에 평균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 외국계 기업이나 정부 투자기관의 임금이 높은 반면에,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이 높은 반면에, 보건사회 분야와 도소매업의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하여 상당한 임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나 시급의 차이는 거의 없어, 정규직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3.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

#### 가. 구직기간 단축효과

학교 졸업 후에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노동시장 이행의 수월성을 보여 준다(이병희, 2002).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활동의 자신감이 줄어들고 낙인효과(stigma effects)로 인해 취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9)</sup>

해외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까지 걸리는 구직기간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동태분석의 일종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기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대학 졸업자 가운데 취업기간이 의미가 없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대학원 진학자와 현재 비구직활동자와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구직기간 계산과 해석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졸업자와 연령문제로 노동시장의 이행경로가

19) 구직기간은 직업탐색을 위한 적절한 과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Polacheck & Siebert, 1993).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직기간의 증가는 노동시장 이행에서 중대한 문제이다(김주섭·박성재, 2003).

다를 것으로 보이는 30세 이상자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은 11,076명이고 이 중에서 자료 작성시점까지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774명인데, 이들의 미취업기간은 23개월로 우측절단(right-censored)된 자료의 특성을 갖는다. 분석 대상자 중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23명이며,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은 9,353명이다.

구직기간의 분포는 KM생존분석(Kaplan-Meier survival analysis)에 의거하였다.<sup>20)</sup> 졸업시점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0개월인 경우는 전체의 40.0%인 4,432명이다. 전체의 7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는 시기는 졸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입직을 기준으로 취업기간이 계산되었음을 고려하면 구직의사를 가진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는 졸업 후 4~5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졸업 후 11개월이 지나면 전체의 80%가 취업에 성공하여 구직대열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18개월이 지나면 90% 이상이 취업하고 22개월이 지나면 생존자(미취업자)가 7% 이하로 줄어든다.

구직대열에서 이탈하여 취업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이탈기간)을 추정하면 5.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표 4〉 참고)되었다. 어학연수 미경험자는 평균적으로 5.3개월이나 어학연수 경험자는 4.2개월로 미경험자에 비하여 1.1개월 정도 더 짧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보면 연수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9개월에서 4.6개월인 반면에, 연수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이 5.1개월에서 5.5개월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두 집단의 평균구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어학연수 경험자의 구직기간이 미경험자의 구직기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더 짧은 것으로 판정된다.<sup>21)</sup>

<표 4> 이탈 소요기간 평균 추정

구분	평균		평균의 95% 신뢰구간	
	추정값	표준 오차	하한	상한
연수미경험	5.321	0.075	5.173	5.468
연수경험	4.241	0.156	3.936	4.546
전체	5.153	0.068	5.019	5.286

20) KM분석에 대해서는 Greene(1997)의 pp. 997~999를 참조하면 된다.

21) 생존기간의 차이 여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KM생존분석(Kaplan-Meier survival analysis)의 검증방식인 Log Rank( $\chi^2=41.223$ ), Breslow (37.723), Tarone-Ware(40.155)가 모두 99.99%의 신뢰수준에서 어학연수 여부에 따라 이탈기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측절단 된 자료의 특성과 해저드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콕스 비례 해저드 회귀 분석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sup>22)</sup>

추정결과(〈표 5〉 참고)를 보면 어학연수 경험의 더미 계수는 0.1208이므로, 해저드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frac{\lambda(t|langerx = 1) = \lambda_0(t)\exp(0.1208)}{\lambda(t|langerx = 0) = \lambda_0(t)} = \exp(0.1208) = 1.1284$$

이는 다른 조건은 같고 어학연수 경험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 어학연수 경력은 구직활동으로부터 탈출률을 평균적으로 12.8% 정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학연수 경험자가 평균적으로 보다 빠르게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어학능력시험의 고득점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해외 거주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연수 국가별 탈출률도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일본의 어학연수자가 가장 빨리 취업에 성공하고 있으며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의 어학연수자도 비교적 빠르게 구직대열에서 탈출하고 있다.

구직으로부터 탈출소요기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졸업평점이 좋을수록, 대학의 취업지원이나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은 1천만 원 이상 최상위 소득층의 탈출이 비교적 빠르고, 전라권 대학의 졸업자는 비교적 구직활동이 길다. 예체능 계열에 비하여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체계적으로 구직활동으로부터 탈출이 늦고,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은 빠르게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조기졸업자는 구직대열에서 이탈이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종속변수는 미취업 기간(월)으로 하였다.

<표 5> 구직생존기간 분석

구분	전체 I			전체 II			연수경험자			
	계수	유의 수준	Exp ( $\beta$ )	계수	유의 수준	Exp ( $\beta$ )	계수	유의 수준	Exp ( $\beta$ )	
졸업평점	0.0667	0.0000	1.0689	0.0666	0.0000	1.0689	0.0167	0.6675	1.0168	
대학만족도	교수진	-0.0122	0.4030	0.9878	-0.0120	0.4125	0.9881	-0.0081	0.8325	0.9920
	교수방식	0.0024	0.8822	1.0024	0.0031	0.8479	1.0031	-0.0342	0.3985	0.9664
	전공교육	0.0410	0.0038	1.0419	0.0410	0.0038	1.0419	0.0410	0.2563	1.0418
	취업지원	0.0481	0.0000	1.0493	0.0476	0.0000	1.0487	0.0698	0.0115	1.0723
입학시월가구소득	1백만 원 미만	0.0275	0.6187	1.0278	0.0296	0.5921	1.0300	-0.0907	0.5984	0.9133
	1~2백만 원	-0.0465	0.1946	0.9546	-0.0423	0.2383	0.9586	0.0214	0.8303	1.0216
	2~3백만 원	-0.0609	0.0537	0.9409	-0.0575	0.0692	0.9441	0.0471	0.5388	1.0482
	3~4백만 원	-0.0493	0.1472	0.9519	-0.0466	0.1710	0.9544	-0.0017	0.9829	0.9983
	5~10백만 원	0.0484	0.2168	1.0496	0.0500	0.2024	1.0512	0.0568	0.4935	1.0584
	1천만 원 이상	0.1612	0.0174	1.1749	0.1608	0.0177	1.1745	0.1312	0.3565	1.1402
대학소재	서울권	0.0199	0.5287	1.0201	0.0180	0.5688	1.0182	0.1259	0.1432	1.1342
	경기권	0.0130	0.7048	1.0131	0.0138	0.6885	1.0139	0.0406	0.6647	1.0414
	경상권	-0.0196	0.5419	0.9805	-0.0200	0.5354	0.9802	0.0328	0.7180	1.0334
	전라권	-0.1793	0.0000	0.8359	-0.1797	0.0000	0.8355	-0.1906	0.1230	0.8265
성별	여자	0.0892	0.0862	1.0933	0.0901	0.0830	1.0943	-0.1343	0.4108	0.8743
계열	인문계열	-0.1568	0.0001	0.8549	-0.1555	0.0001	0.8560	-0.0270	0.7943	0.9734
	사회계열	-0.1220	0.0002	0.8851	-0.1206	0.0003	0.8864	0.0602	0.5597	1.0620
	공학계열	0.1108	0.0015	1.1171	0.1117	0.0014	1.1182	0.1745	0.1090	1.1906
	자연계열	-0.0312	0.4275	0.9693	-0.0295	0.4528	0.9709	0.1216	0.3462	1.1293
	의약계열	0.3320	0.0000	1.3938	0.3338	0.0000	1.3962	0.3300	0.1175	1.3909
분교	0.0086	0.8192	1.0086	0.0086	0.8190	1.0087	0.0231	0.7974	1.0233	
전공 재선택 여부	0.0100	0.6547	1.0101	0.0100	0.6559	1.0100	-0.0244	0.6643	0.9759	
학비	부모 지원	-0.1137	0.0000	0.8925	-0.1140	0.0000	0.8922	0.0033	0.9614	1.0033
조기졸업	-0.3791	0.0016	0.6845	-0.3801	0.0016	0.6838	-0.2749	0.2589	0.7596	
어학연수	연수경험	0.1208	0.0000	1.1284						
	미국				0.2016	0.0006	1.2233			
	캐나다				0.1177	0.0271	1.1249			
	호주				0.1101	0.0838	1.1164			
	뉴질랜드				0.0969	0.4012	1.1018			
	영국				0.1316	0.1286	1.1406			
	일본				0.2458	0.0174	1.2786			
	중국				0.0907	0.2060	1.0949			
연수기간							0.0000	0.8789	1.0000	
-2logL		177,710.5			177,704.1			21,552.8		
표본 수		11,076			11,076			1,676		

어학연수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회귀분석에서는 취업지원 만족도가 높은 경우와 직업탐색 경험자의 탈출률이 높으며, 어학학원 이수자는 탈출률이 체계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수기간이나 연수횟수, 연수비용 등은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23)</sup>

#### 나. 재직기간 연장효과

대학 재학 중인 재직자의 경우는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졸업 6개월 이전 취업자는 재직기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30세 이상이나 현재 일반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도 노동시장에서 위치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기간분석의 특징인 시점의 차이로 인한 해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졸업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분석대상은 9,650명이고, 이들 중 조사당시 시점에서 취업해 있는 경우는 9,053명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597명이다. 분석대상 가운데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는 1,601명이고, 해외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은 8,049명이다.<sup>24)</sup> 분석대상자 중에서 졸업 6개월 전에 취업하여 조사시점까지 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어 전체의 1%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졸업시점에 취업하여 조사시점까지 같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2,405명으로 전체의 1/4 정도에 이르고 있다.

평균적인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해외 어학연수 미경험자가 15.2개월이고, 경험자는 16.1개월로 연수경험자가 0.9개월 정도 더 길다. 95%의 신뢰구간에서 평균은 연수미경험자가 14.9개월에서 15.2개월인 반면에, 연수경험자는 15.7개월에서 16.5개월로 전반적으로 더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sup>25)</sup>

23) 연수비용과 연수횟수는 표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24) 입직시점이 각각 달라 재직기간의 산정시점이 다르지만, 계속 취업자의 재직기간 최종시점은 자료의 조사기준인 2006년 12월까지로 계산한다. 따라서 재직자 중에서 첫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취업해 있는 경우에 재직기간은 우측절단된 자료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KM 방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 8월 시점의 취업자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하였으므로 가능한 최대 취업기간은 28개월이다.

25) 어학연수 경험에 따른 직장에서의 생존기간 차이의 검증은 Log Rank( $\chi^2=17.7$ ), Breslow(24.3), Tarone-Ware(24.7)로 신뢰수준 99.99%로 확인된다.

&lt;표 6&gt; 재직기간 평균 추정

구분	평균		평균의 95% 신뢰구간	
	추정값	표준 오차	하한	상한
연수미경험	15.214	0.085	15.048	15.380
연수경험	16.094	0.187	15.728	16.460
전체	15.361	0.077	15.209	15.512

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측절단 된 자료의 특성과 헤저드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콕스 비례 헤저드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 참고)를 도출하였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어학연수 경험자의 일자리 이탈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8.82%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에게는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더 많이 주어 져, 적성에 맞거나 급여수준 등 조건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연수 국가별로는 미국(14.2%)과 캐나다(15.1%) 어학연수 경험자의 근속기간이 평균적으로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직기간 분석을 보면 서울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울지역 대학의 졸업자는 취업이 빠르다는 점이 근속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탈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출산 등의 요인과 상대적으로 직장의 근무조건에 민감하여 이직과 입직을 빈번하게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 탈출률은 체계적으로 낮은 반면에, 의약계열 탈출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전공이 불일치할 경우와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속기간이 체계적으로 짧다. 정부기관 혹은 정부 투자기관의 근무지는 근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입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이 늦어진 것에 기인한다(오호영, 2008). 산업별로는 정보처리,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탈출률이 높고, 직업별로는 청소 등과 같은 분야에서 재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수경험자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는 기업규모가 크거나 정규직에서 유의미하게 재직기간이 길고, 정부기관 취업자나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재직기간이 체계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재직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전체 I			전체 II			연수경험자			
	계수	유의 수준	Exp ( $\beta$ )	계수	유의 수준	Exp ( $\beta$ )	계수	유의 수준	Exp ( $\beta$ )	
나이	-0.0018	0.7285	0.9982	-0.0019	0.7082	0.9981	-0.0354	0.1266	0.9652	
권역	서울권	-0.0676	0.0362	0.9346	-0.0621	0.0547	0.9398	-0.1750	0.0456	0.8395
성별	여자	0.1394	0.0000	1.1496	0.1386	0.0000	1.1486	0.0405	0.6362	1.0413
계열	인문계열	-0.0125	0.7687	0.9876	-0.0196	0.6476	0.9806	0.0045	0.9679	1.0045
	사회계열	-0.1336	0.0005	0.8749	-0.1316	0.0006	0.8767	-0.2115	0.0665	0.8094
	공학계열	-0.1749	0.0000	0.8396	-0.1751	0.0000	0.8394	-0.2958	0.0180	0.7439
	자연계열	-0.1298	0.0021	0.8782	-0.1271	0.0026	0.8806	-0.1397	0.2963	0.8696
	의약계열	0.1376	0.0333	1.1475	0.1393	0.0311	1.1495	0.1019	0.6584	1.1073
다시 전공 선택	-0.0317	0.1368	0.9688	-0.0313	0.1431	0.9692	0.0010	0.9857	1.0010	
조기졸업	-0.2282	0.0571	0.7960	-0.2226	0.0637	0.8005	-0.3119	0.1855	0.7321	
직장탐색	0.2345	0.0000	1.2642	0.2334	0.0000	1.2629	0.1164	0.0488	1.1235	
기업규모	-0.0196	0.0000	0.9806	-0.0191	0.0000	0.9811	-0.0598	0.0000	0.9419	
전공불일치	0.1879	0.0000	1.2067	0.1867	0.0000	1.2053	0.0710	0.2654	1.0736	
노동조합 불가	0.0795	0.0038	1.0828	0.0787	0.0042	1.0818	0.0890	0.1920	1.0931	
기업 성격	민간회사	0.0105	0.7798	1.0105	0.0129	0.7312	1.0130	-0.0360	0.7176	0.9647
	외국회사	0.0072	0.9139	1.0072	0.0068	0.9179	1.0069	0.0325	0.8095	1.0330
	정부투자	0.1439	0.0095	1.1548	0.1446	0.0092	1.1556	0.1962	0.1727	1.2168
	정부기관	0.2869	0.0000	1.3322	0.2849	0.0000	1.3296	0.4783	0.0045	1.6134
	교육기관	-0.0259	0.6419	0.9744	-0.0267	0.6322	0.9736	0.1823	0.2514	1.1999
	연구기관	0.0777	0.5016	1.0808	0.0735	0.5250	1.0763	0.0109	0.9693	1.0109
산업	제조업	-0.1164	0.0006	0.8901	-0.1204	0.0004	0.8865	-0.0586	0.4669	0.9430
	교육서비스	0.2163	0.0001	1.2415	0.2174	0.0001	1.2428	0.0936	0.5392	1.0982
	사업서비스	0.0790	0.0279	1.0822	0.0775	0.0310	1.0806	0.2054	0.0220	1.2280
	보건사회	-0.0315	0.5635	0.9690	-0.0323	0.5528	0.9682	-0.0941	0.6262	0.9102
	도소매	-0.0152	0.7527	0.9849	-0.0197	0.6834	0.9805	0.0380	0.7239	1.0388
정규직 여부	-0.2645	0.0000	0.7676	-0.2639	0.0000	0.7681	-0.1765	0.0403	0.8382	
어학 연수	연수경험	-0.0855	0.0030	0.9180						
	미국				-0.1604	0.0058	0.8518			
	캐나다				-0.1638	0.0023	0.8489			
	호주				0.0177	0.7932	1.0179			
	뉴질랜드				0.0385	0.7498	1.0392			
	영국				-0.1462	0.0899	0.8640			
	일본				0.0173	0.8749	1.0175			
	중국				-0.0335	0.6532	0.9670			
연수기간							0.0037	0.4891	1.0037	
-2logL		159,090.4		159,090.4			20,346.7			
표본 수		9,614		9,614			1,569			

## IV. 결론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군입대 기간 등을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5.4년이 걸리고 있는데, 어학연수 경험자는 6개월이나 더 긴 평균 5.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 2006). 대학 졸업시기를 미루면서 이루어지는 어학연수는 그 비용도 2006년 1년 동안 총 5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 해외 어학연수 실태와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는 어학연수가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이 선택하는 예외적인 교육으로 여겨지는 측면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대학졸업자 직업이동경로조사는 어학연수에 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관련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횡단면으로 분석해 보면 어학연수 경험은 취업에 체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24.3%)을 주고 있으며, 상당한 임금 프리미엄(7% 내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 분석 결과를 보면 어학연수 경험자는 구직기간( $\Delta$ 12.8%)이 평균적으로 짧아 빠르게 취업하고 있으며, 장기간 일자리(8.8%)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어학연수에 따른 비용(1,266만 원)은 연공서열급을 고려하여 현재의 연봉(2,589만 원)이나 월 급여(147만 원)로 단순하게 검토하면, 취업 후 약 7~10년 이내에 보전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평균적으로 어학연수의 투자가치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해외 어학연수는 '교육(schooling)'과 '이주(migration)'가 결합된 새로운 인적자본축적 방식으로 노동시장에서 평가되어,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배무기, 2002). 유사한 사례는 해외 박사학위의 취득이나 대학생의 편입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고학력자의 인적자본 형성과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어학연수 참여자는 경제적인 유인(economic incentive)에 따라 언어 학습지를

해외로 옮기는 '현명한 순례자(perspicacious peregrinators)'일 가능성을 암시한다(Polacheck & Siebert, 1993).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방이 가속화 되고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외국어 능력과 해외경험을 가진 대학졸업자를 우대하는 기업의 풍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근거에는 구인업체들이 특정 직무를 위한 현재의 능력보다 순환 직무를 위한 잠재된 능력을 우선시하고, 이를 외국어라는 대리변수로 측정하고 선발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채용관행이 있다(박천수, 2005). 이에 따라 대학교육 현장에서 해외 어학연수를 포함하여 '외국어 과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요구되는 외국어 소통능력의 제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도한 해외 어학연수로 인하여 졸업시기가 늦어지고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대외 서비스 수지악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학점 인정 및 방학을 이용한 연수기회 제공으로 졸업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 어학연수기관 인증제의 도입 등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를 높이고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취업 가능성과 임금이 어학연수 횟수와는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러 번에 걸친 어학연수가 사회 적응력이나 학습능력의 저하와 낮은 생산성에 대한 식별기제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개인의 능력이나 목적을 도외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어학연수는 노동시장 이행 곤란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학연수의 노동시장 성과가 연수 그 자체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적극성이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의할 수도 있다. 이는 우수 대학의 교육이 인적자원 형성에 기여하는지, 혹은 우수 대학의 이수가 단지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는 선별 효과(screening effects)에 불과한 것인지와 유사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향후 축적되는 시계열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 어학연수의 효과성 분석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기초 통계

1. 개인별 가중치로 계산한 어학연수 관련 자료

<계열별 어학연수자의 비중, 비용과 기간>

계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합계
연수자 수(명)	12,448	10,822	1,380	9,628	3,798	895	2,501	41,472
전체 졸업자(명)	39,258	69,926	14,632	69,419	36,441	12,466	26,691	268,833
비중(%)	31.71	15.48	9.43	13.87	10.42	7.18	9.37	15.43
평균비용(만 원)*	1,305	1,341	1,257	1,135	1,289	878	1,366	1,266
연수기간(월)*	9.3	8.4	7.5	7.9	8.5	6.2	8.7	8.5

주: \* 일부 결측치 제외.

<어학연수 목적과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합계	
회화실력	588	1.7	1,979	5.6	18,286	52.1	14,238	40.6	35,091	100.0(84.6)
유학 준비	34	2.3	75	5.0	777	51.7	617	41.1	1,503	100.0(3.6)
국내취업	38	1.4	45	1.6	1,667	61.0	984	36.0	2,734	100.0(6.6)
현지취업	0	0.0	0	0.0	121	37.7	200	62.3	321	100.0(0.8)
기타	50	2.7	94	5.2	841	46.1	838	46.0	1,823	100.0(4.4)
만족도 계	710	1.7	2,193	5.3	21,692	52.3	16,877	40.7	41,472	100.0

2. 계량 모형의 주요 변수(가중치 미부여)

변수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봉(만 원)	7058	0	12000	2588.9337	873.9590
월평균(만 원)	4888	0	2000	146.9656	92.7454
주당(만 원)	25	3	150	25.2000	30.8653
일당(만 원)	100	1	30	6.3200	4.9927
시간당(천 원)	116	2	50	11.8888	12.3003
여자(yes=1)	15910	0	1	0.4468	0.4972
연수경험(yes=1)	15910	0	1	0.1571	0.3639
연수기간(월)	2463	1	47	8.4990	5.2566
어학연수 횟수(회)	2499	1	3	1.1176	0.3508
나이(세)	15902	19	63	26.6094	2.9152
과잉교육(yes=1)	15910	0	1	0.1898	0.3921
과잉기능(yes=1)	15910	0	1	0.1736	0.3788
직무불일치(yes=1)	15910	0	1	0.1793	0.3836
노동조합(no=1)	15910	0	1	0.6124	0.4872
아르바이트(yes=1)	15910	0	1	0.2977	0.4573
목표기업(yes=1)	15910	0	1	0.2443	0.4297
목표직업(yes=1)	15910	0	1	0.4858	0.4998
직업훈련(yes=1)	15910	0	1	0.1485	0.3556
자격증보유(yes=1)	15910	0	1	0.6486	0.4774

## 참 고 문 헌

- 강순희·박성재(2002).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직무의 일치」,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139~168쪽,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1호, 23~52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주섭·박성재(2003).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분석」,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17~44쪽,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박천수(2005).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직무경쟁 이론」, 『제4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133~150쪽,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배무기(2002). 『노동경제학』, 경문사.
- 연합뉴스(2008). 「대학생 59% 군복무 이외의 이유로 휴학」, 2008년 3월 6일자.
- 오세규(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호영(2008).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공공부문 채용제도 영향분석」,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심포지엄 자료집』, 797~825쪽, 한국고용정보원.
- 이규용·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2호, 69~94쪽,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2).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31~50쪽,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이상준(2006). 「자격증이 임금,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9권 제2호, 145~169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정태화(1994). 「한국의 과잉교육 현상에 관한 실증적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미석·윤형한(2003).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대학재학생 희망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천영민·윤경혜·이성재(2008). 「대졸자의 일자리 이동에 따른 종사상 지위 및 경력변동 실태분석」,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심포지엄 자료집』, 691~715쪽, 한국고용정보원.

한겨레신문(2008). 「캠프 내용 좋을수록 어학연수 더 선호」, 2008년 3월 10일자.

한국고용정보원(2006).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한국일보(2003). 「해외유학·연수비 5조7,000억」, 2003년 2월 20일자.

Becker, G.(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Y: Colombia University Press.

Greene, W. H.(1997). *Econometric Analysis*, NJ: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Gronau, R.(1974). “Wage Comparison: A Selectivity Bia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2 No.6, pp. 1,119~1,143.

Heckman,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Vol.47 No.1, pp. 153~161.

Polacheck, S. W.(1975). “Potential Biases in Measuring Male-Female Discrimin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6 No.10, pp. 205~229.

Polacheck, S. W. & Siebert, S. S.(1993). *The Economics of Earn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ith, V. K.(1983). “The Role of Site and Job Characteristics in Hedonic Wage Models”,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13 No.3, pp. 296~321.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www.hankooki.com>

## abstract

---

## A Study on the Effect of Overseas Language Training Programs upon the Transition from College to Labor Market

Cheonsoo Park

Using the 2006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this study revolves overseas language training programs' influence o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survey revealed that 15.4% of 4-year college graduates left Korea for language training, and that the costs of such programs generally exceeded a full year's tuition fees.

The study found that those received programs had a 24.3% higher probability of finding employment, *ceteris paribus*. The wage level of those was revealed to be about 7% higher. Meanwhile, the length of their job search was 12.8% shorter than that of others. The length of the period of employment, regarded as a good indicator of the quality of any job, was found to be 8.8% higher.

In conclusion, overseas language training can be construed as a phenomenon related to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nd which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economic incentives such as perspicacious peregrinators.

**Keyword:** Overseas language training, Employment of university graduates,  
Length of job search, Wages, Perspicacious peregrinators